

2008 새해설계 ①①

포천시산림조합 조합장 남궁중

산주에게 능고선이 첨부된 임야도 무료 발급

내나무 갖기운동과 한수이북 나무유통센터 운영 계획

“포천시산림조합은 2007년 각종 산림사업은 물론 나무시장, 산촌개발사업, 사방댐, 유역관리, 산지사방, 조합원 자녀 장학금지급, 임업관련경비 면세유 공급을 하였고 특히 산림청에서 실시한 임업 기술지도 사업 우수, 전국 조합원가입 우수 조합 표창, 산림사업평가 경기도 1위의 실적을 거머쥐었고 신용사업에 있어서도 상호금융 수신고를 270억원 가까이 올리는 성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궁 조합장은 “2007년 포천시산림조합은 산주조합원 가입 확대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산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났으며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내 5만4천ha의 산림중 6천344ha의 산림을 대리경영계약 체결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조합이 산주를 대신하여 방치되어 있는 산주조합원의 소중한 산림을 경영해주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년 들어서도 남궁 조합장은 조합원 자녀 장학금 확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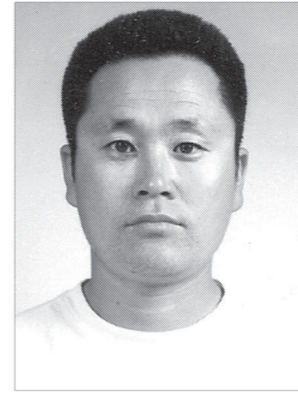
급 및 임업 면세유지원 사업을 공급확대해 나갈계획이며 각종 산림소득사업 저리용자지원, 산림복합경영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숲 체험 행사, 산용사업 전국 온라인 시스템 설치 등 다각적인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 1통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올해 목표인 예수금 300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합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포천시 관내 산주는 1만1천467명이며 이중 소재 산주는 5천617명, 부재산주는 5천850명으로 알

려졌으며 포천시산림조합원에는 소재산주가 1천341명, 부재산주가 136명이다. 포천시산림조합은 신북면 금동리에 산촌마을을 개발하여 도시의 관광객을 불러모을 계획이다. 작년부터 주산지로서 인도를 개설하고 잣 액기스 공장을 개설하고 숲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관광수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 사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방댐을 건설하여 산을 보호하고 민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남궁 조합장은 우리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산을 찾고 있다며 산림에서 나오는 산소가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 나 자신 나무 한그루라도 심어줬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 조합장은 범시민 내나무 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한수이북에 나무유통센터를 만들어 포천시산림조합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남궁 조합장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예 산을 적극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공공시설 숲 가꾸기도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산림과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62

정통중화요리 북경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정통중화요리



대표 조기만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며 언제나 변함 없는 마음으로 약 20년 동안 양질의 중화요리를 제공해온 정통중화요리전문점 북경(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대표:조기만)은 인근지역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중국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신속한 배달’을 철학으로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며 자리 매김하고 있는 지 오래다. 중화요리전문점 북경이 이처럼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자리 매김 해온 것은 고객의 입에 맞는 음식제공과 그동안 지속적인 영업, 영업

다고 한다. 신속한 배달을 운영의 묘로 삼고 실천하고 있는 중화요리전문점 북경은 고객들이 만족 할 수 있는 메뉴를 다양한 세트메뉴로 설정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세트 요리를 알아보면 1. 탕수육+짜장 13,000원 2. 탕수육+짬뽕 14,000원 3. 탕수육+우동 14,000원 4. 탕수육+짬뽕 2인분 15,000원 5. 탕수육+짬뽕 2인분 20,000원 6. 탕수육+짬뽕 1인분 15,000원 7. 탕수육+짬뽕 2인분 20,000원 8. 간소새우+짬뽕 22,000원 9. 간소새우+짬뽕 22,000원 10. 간소새우+짬뽕 22,000원 11. 간소새우+짬뽕 22,000원 등 다양한 메뉴와 가격대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즐겨 찾는 안주용 세트 요리로는 3종류가 있다. ▶탕수육+양장피+짬뽕+만두 등 A세트 5만원. ▶탕수육+팔보채+짬뽕+만두 등 B세트 5만원. ▶탕수육+양장피+팔보채+고추장+짬뽕+만두 등 C세트는 고급세트로 10만원 받고 배달해 주고 있다. 조 대표는 “오랜 기간동안 변함 없이 저희 집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오늘도 내일도 고객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객들을 위한 보답으로 주문하는 모든 요리를 고객들이 맘놓고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맛있게 만들어 제공하는 일” 이

오랜 경력만큼이나 모든 요리도 자신 고객의 입맛에 맞는 요리개발에 노력

시간 준수로 고객들이 선호하게 되었다. 현재 7년째 중화요리전문점을 운영해온 조 대표는 북경을 운영해온 전 사장 밑에서 주방과 배달 모든 관리 및 노하우를 3년 동안 직접 피부로 느끼며 기초를 다져온 전문가이다. 그래서 인지 조 대표는 인근지역 고객의 성향이나 입맛 등 고객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장점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인근지역에 중소기업체가 많아 고객의 절반이상을 업체의 고객들이 차지했었고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주 고객이라 질보다는 양을 선호했지만 최근 들어 송우리 지역이 도시화되고 많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고객 층도 바뀌어 양보다는 맛과 질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재료사용은 기본이며 양념하나부터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고객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요리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안전한 운행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수시로 주문하며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중화요리전문점 북경은 매일 24주 목요일을 휴일로 정해놓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바쁜 일정, 과중한 업무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겠 식사시간을 놓치기가 부지기수다 이럴 때 인듯 생각나는 음식이 중화요리다. 또한 집이나 손님 방문 시, 아끼면 서로서로 식사메뉴로 의견이 분분할 때 즐겨 찾는 메뉴가 중화요리다. 오랜 전통만큼이나 맛을 자랑하고 있는 중화요리전문점 북경에서 전화 한통화로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문의전화 T. 031)542-4334-5 정영갑 기자 jpk61@paran.com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며 약 20년 동안 양질의 중화요리를 제공해온 정통중화요리전문점 북경은 인근지역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중국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신속한 배달’을 철학으로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며 자리 매김하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29

“사람은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세월이 가면 서 익어가는 것이다.” s 필립스 생명체라면 어떠한 것이든 삶과 죽음을 거역할 수 없다. 가장 명확한 것이 죽음이며, 가장 불확실한 것 또한 죽음이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서는, 설날 떡국 한 그릇 더 먹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막상 성인이 되어 중년을 넘어가면서는 세월의 흐름 앞에 아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이 아닌가! 늙어 간다는 것도 서글픈데 부양할 가족조차도 없이 외면당하는 시대, 강아지 집은 그려 넣어도 부모님 집은 그림 생각조차 안하는 시대... 미국 어느 마을 ‘렌드 어 백(Lend-a-back)’이라는 회사는 ‘등을 빌려 준다’는 이름처럼 힘든 일을 대신 해준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트리를 세워 달라고 의뢰해 온다. 직원들이 할머니 집 다락에서 트리와 장식들을 꺼내 차려주고는 왜 뒤늦게 트리를 챙기느냐고 물었

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들 부부와 손자들이 여행길에 잠깐 들른다고 한다. 정말 어찌다 오는 기회에서 기쁘게 해주고 싶다.’ 한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늙어 갈수록 자식과 손자들이 보고픈 마음은 어느 무엇과도 견주어 볼 수 없는 간절한 기쁨이다. 자식 얼굴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재산을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게 요즘 현실이다. 게다가 몸마저 병들어 있다면...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이 나뉘고 있을 정도로 초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병폐현상이다. 봄 햇살의 따사로움이, 요 며칠 전에는 한여름의 기운을 느끼며 지구온난화라고 떠들더니 이젠 다시 겨울이 왔다 싶을 정도로 추위가 살갗을 건드리고 있다. 습도도 낮고, 자연적으로 병원에 호를 옮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줄을 이룬 봄기운에 아의 운동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응급실로 실려 오는 일도 종종 있다. 혈관 문제가 많은 노인이나 고혈압 환자 등은 추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

아름다운 황혼

아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뇌졸중은 찬 기운보다 급작스러운 온도차 더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렇듯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실버보험이라는 상품과 연금 상품에 중점적인 설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과 치매, 일상생활 장애간병비 등, 진단 자금과 입원비,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상생활 장애란 스스로 보행과 이동이 불가능하고 옷 입기,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등에서 한 가지 이상을 혼자서 못할 때를 말한다. 보장은 좋으면서 조금이라도 싼 보험을 찾는 게 생리현상이다. 생보사는 연금 형식으로 수년에 걸친 간병비를 지급한다. 손보사의 경우에는 보장액과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비교하면 어렵다. 보험의 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치료비나 입원비 같은 특약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와 관련이 있다. 실버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특약과 특약의 적절한 조화를 잘해야 제

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보장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회사별로 보장의 내용과 보험료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곳에 문의를 하고 설계를 받아보기를... 지금 부모님이 생전에 계산하면 효보험으로 효도를 설계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병명이 발견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험비 때문에 집사위하는 불효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차사랑은 없다 했는가! 자식 교육비로는 상당한 돈을 아끼워주지 않고 당연시하면서 부모에게 10만원의 용돈도 헤아리고 헤아리는 현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안 있어 내 모습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정 코인포렌셜소장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국세청 국제종합상담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다음과 같은 상담에 응하고 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 부담(이동전화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하면서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rs.go.kr)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rs.go.kr)의 「세무상담」을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시제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가 부딪치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도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제청 국제종합상담센터 ◆서면상담 :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주소 : (우:135-7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 10층 국제종합상담센터 FAX : 02-2052-3243(접수안내) : 02-3011-6134) ◆방문상담 국제종합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제종합상담센터 1층 방문상담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670-4482~4489)

산업안전사고 예방

선박 블록 전도로 인한 근로자 전도/추락

▶재해발생 개요 • 2006년3월9일0분경 기계선박블록 턴오버(Turn Over) 작업자인 피재자가 선박블록 탑재를 위해 턴오버된 블록상부에서 동료 작업자와 함께 줄걸이 고정용 사를 해체하던 중 블록 고임목이 파손되어 블록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전도되는 블록과 함께 피재자가 전도 및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앙물류급식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하여야 하나 동 작업에서는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등 위험요소사전에 발괄 예방 미조치 나. 블록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블록 턴오버 및 사를해체 작업 등 전도위험이 있는 작업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썬트에 의한 블록지나 지게차 등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다.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라. 부적절한 고임목사용 • 철재의 블록이 콘크리트위에 긁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개의 고임목 중 1개는 이미 파손되었고, 블록 바닥면의 폭이 1m인데 사용된 고임목길이는 0.6m로 고임목 선정 부적절 ▶중중재해 예방대책 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턴오버 및 사를해체 작업

작업자 전도/추락 위험이 상존, 작업계획서를 작성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 운영 나. 블록 전도방지조치 실시 ○블록 턴오버 작업시에는 블록의 무게중심이 바뀌므로 블록형상에 EKR라 썬트 등으로 전도방지 조치 실시 후 작업 다.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 실시 라. 견고하고 튼튼한 고임목 사용 • 블록 턴오버 작업시에는 지지되는 부분보다 길이가 더 길고 블록의 중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구조와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고임목 용도로 사용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소득축소·탈루자료 국세청 통보

■개정내용 가입자의 소득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Q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내용을 축소 또는 탈루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하여 소득에 합당한 소득월액 신고를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031-544-8700